

## 민주 현역의원 물갈이 명단 발표 ‘초읽기’ 호남 정치권 긴장... 술렁...

### 1차 30%, 2·3차에 50% 탈락 가능성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천 심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호남 현역의원 물갈이 명단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해신 공천의 출발 지인 호남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당장 4일에는 공천 배제 기준이 발표되고 이틀후에 호남지역 공천 배제 현역의원들의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1차 30% 공천 배제에 이어 2·3차 공천 심사를 거치면서 광주·전남지역 현역의원들의 물갈이 폭은 절반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통합민주당 공심위 박경철 홍보간사는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4일 공천 배제 기준을 합의해 발표하고 단수신청 지역과 경합지역 가운데 일부 유력한 지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 한해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공심위가 1차 심사 결과 발표와 함께 호남지역 현역의원들의 30% 물갈이 명단도 함께 공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의 보고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5일이나 6일, 혹은 호남지역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8~9일경 공천 배제 대상 호남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명단이 발표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천 배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일부 현역의원들은 인맥 등을 총 동원, 당 지도부와 공심위원 접촉에 나서며 막판 구세 작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3차 공천 심사와 엄격한 공천 기준에 의해 호남지역 현역의원들의 물갈이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호남지역 현역의원들의 공천 배제 명단은 이르면 5일이나 6일, 아니면 호남지역 1차 심사 결과가 발표되는 9일경 이뤄질 전망”이라며 “그러나 2·3차 공천 심사를 거치면서 추가로 호남지역 현역의원들의 물갈이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호남지역 1차 공천 심사 결과와 관련, 당 내부에서는 오는 9일경 최종적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며 예비 후보들도 3배수나 4배수 정도로 압축될 전망이다.

또, 호남지역 대부분 지역구에서 국민 여론조사 경선이 도입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경쟁전이 치열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락공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 여론조사 경선의 경우, 예비 후보자들의 합의 등을 거쳐 11~13일경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민주당의 최종 총선 후보 공천은 14일이나 15일경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모 일간지는 호남지역 공천 배제 대상 현역의원들의 명단을 실명으로도 보도, 파문을 일으켰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봄의 전령 매화 꽃망울 ‘톡톡’ 아기 울음소리 2년째 늘었다



### 전남, 귀농·결혼이민 영향

귀농과 결혼 이민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전남지역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증가했다.

전남도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7년 출생통계 잠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남도내에서 지난해 1만7천553명의 아기가 태어나 전년보다 12.9%(2천5명)가 늘었다”고 3일 밝혔다.

반면 전남 인구는 전년보다 1만3천89명(0.6%) 줄어든 192만9천836명을 기록하는 등 1970년 대비 무려 42%나 격감했다. 하지만 신생아는 지난 2006년 전년보다 84명이 늘면서 반등 곡선을 그린다 이어 2007년에 급증세를 보였다.

시·군별로는 곡성군만 전년보다 27명 줄어든 219명을 기록했을 뿐, 여수시가 148명이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33.7%)을 보이는 등 21개 시·군에서 신생아가 전년보다 늘었다.

이는 친환경 농업 집중 육성 등에 힘입어 지난 2004년 37가구에 불과하던 귀농가구가 2005년 89가구, 2006년 249가구 등으로 큰 폭으로 늘면서 가입여성도 함께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3년간 귀농 가구 가운데 임신이 가능한 20~30대는 143가구였다.

또 국제결혼에 따른 이주여성도 지난해말까지 4천536명으로 증가하고, 이주여성 자녀도 총 4천567명으로 집계돼 출생아 수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 전북대 2개 뽑고 끝난 전가

### 대불산단, 예산·규제 묶여 ‘블록 운반 전쟁’ 계속

“선박 블록 운반에 큰 지장을 주는 대불산단 전봇대가 아직도 780개 남아 있으며,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교량들도 언제 보강공사를 할지 모를 일이지요. 대불산단은 총제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리모델링을 하는 것만이 산단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합니다”

3일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전남도 주최로 영암군·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한전 영암지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불산단 기능보강을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다.

산단 관계자들은 이날 “여론의 화살에 고작 2개의 전봇대만 뽑혔을 뿐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요즘도 블록 하나를 옮기는 데 1~2시간씩 걸리는 등 매일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009년 이후로 보강공사를 미뤄오며 소동교와 마골교는 연내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 추가 보강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대 삼호, 서원, 알파 중공업 등 선박 블록 운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15만4천볼트급 고압선도 일부 구간의 지중화와 높이 상향조정(22m→42m)이 필요하나 공사기간이 최장 3년이 걸리고, 예산도 9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중장기 과제로 분류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당초 영암군이 2천600여원을 투입하는 대불산단 리모델링을 내렸으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가능한 예산부터 확보해 교량 보강 등 시급한 숙제부터 풀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 “이건희 회장 주말 소환” 삼성특검 검토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3일 이건희 삼성 회장을 급주 중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회장이 ‘삼성 의혹’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1차 수사기간 종료일(9일) 전에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직 소환 시점을 최종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말에 조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협뉴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후원회 광고** 접수합니다

후원회를 지원하는 당사(당)은 지역별 예비후보자를 많이 확보할 필요로 하며 후원회 광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후원회 후원회장은 후원회 광고는 지역 당에 후보자(당원) 공신력(당원)을 높이는 좋은 기회입니다.

후원회 220-0529, 222-8500  
광주일보 광고마케팅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1000-15  
**청명한 경제전문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1000-15  
**특급 구원투수** 이용섭 후원회  
말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광주 광산구 **이용섭** 후원회

꿈·희망·사랑이 되겠습니다!  
통합민주당 서구갑 **조영택** 후원회

광주 서구갑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조영택** 후원회